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10월 31일 화요일 (음 9월 12일) 제191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농수산대 재학생 노동착취 사실로 밝혀져

▶ 김중희 의원, 농식품부 종합 감사서

장기현장실습 과정에서 농장주로부터 시달려 조사결과 24건 폭언·15시간 장시간 노동 실시 학교 당국은 농장주들 편 드는 듯한 태도 취해

국립 한국농수산대학(총장 김남수)의 재학생들이 장기현장실습(10개월~12개월) 과정에서 농장주로부터 인권유린과 장시간 노동착취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실습학생들을 보호하고 '인권지킴이'를 자처해야 할 학교 당국은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실습 농장주들의 편을 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김중희의원(국민의당, 김제-부안)은 30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 감사에서 "대통령령과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을 근거로 설립된 농수산대학은 지난 2009년 학교명칭을 한국농업대학에서 현재 교명으로 바꾸고 그 소속을 농촌진흥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변경했다"면서 "한국농수산대학 재학생들이 장기현장실습 과정에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노동력을 착취 당했다면 장관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책임론을 제기했다. 10개월~12개월 실시하는 장기 현장실습 교육에는 무려 33억9800만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농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보를 바탕으로 ▲에어컨조차 없는 방에서 한 여름 찜통더위 생활하기 ▲농장주의 폭언 등 인권유린 ▲학과목과 무관한

농장주의 노동력 착취 ▲규정을 무시한 제 진행되는 실습교육 등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그의 질의를 바탕으로 학교 당국은 지난 16~28일까지 열 하루 동안 실습에 투입된 전체 학생들을 상대로 인권 침해 여부 및 현장 실습장 내 숙박시설 운영 실태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현장실습중인 학생이 보낸 사진을 통해 실습장에 대한 간접조사를 받았다. 이 결과 17.7%에 달하는 36곳 실습장의 주거 환경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203개소의 실습장 가운데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34곳(16.7%)에 달했다. 특히 2곳(1%)은 에어컨조차 없는 창고형 컨테이너 박스를 학생들의 숙소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장주의 폭언과 장시간 노동 강요, 학과목과 무관한 농사일 지시 등 인권유린과 노동력 착취행위가 24건이나 드러났다. 같은 농장에서 2건 이상의 문제행위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지만 203개소의 작업장 대비 인권유린 및 노동력 착취 행위는 무려 11.8%에 달하는 셈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농번기에 열흘 정도 아침 7시~밤 10시까지 15시간의 장시간 노동 실시 ▲화해농장에 투입된 학생이 사장 부인 및 과장의

폭언과 멸시를 받았고 학과목과 무관하게 농장주가 운영하는 식당에 재료 조달 등 잡일 대행 ▲가족농장으로 실습나간 학생이 감자 파종 및 수확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인권지킴이를 자처해야 할 학교 당국이 농장주들의 편을 드는 듯한 모호한 태도를 취해 비판을 사고 있다. 실습나간 여학생의 의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농장주는 '이기'라고 호칭하고 일과시간이 끝난 뒤 숙소를 지켜보는 등 상식 밖의 언행을 일삼았지만 학교는 농장주를 두둔하는 듯한 보고서를 만들었다. 당국은 결과 보고서에서 "현장교수, 즉 농장주는 실습생이 딸같이 생각되어 낮은 곳에서 혹여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음. ~~~(중략)~~~학생에 대한 호칭은 현재 실습중인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다른 의도 보다는 언어적 습관 정도로 판단됨"이라고 적시한 것이다. 학교 당국은 24건의 인권유린 및 노동력 착취가 있었다는 학생들의 설문조사 답변에도 불구하고 11건을 경미한 사안으로 종결 처리,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에 대한 의지가 미약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실태 조사는 '농장주 빚주기'식 조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학생 인권 유린 및 노동력 착취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농식품부의 직접 조사 및 진상조사 책임자에 대한 처벌, 대학 총장의 공식 사과 등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진성 기자



30일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사업현장에서는 송하진 도지사, 박성일 완주군수, 안호영 국회의원, 정성모 군의장, 출자회사 관계자, 도·군의원, 기관단체장, 기업체, 주민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완주 15만 도농복합자족도시 초석을 다질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기공식' 행사가 열렸다.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첫 삽' 3444억 투자 1만4252명 일자리 창출 기대

완주군 테크노밸리 제2 일반산업단지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조성에 들어갔다. 30일 완주군은 봉동읍에서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기공식을 열었다. 기공식에는 송하진 도지사, 안호영 국회의원, 박성일 완주군수, 기업체 관계자, 기관 관계자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완주군의 테크노밸리 2단계 사업은 봉동읍 제내리, 장구리, 둔산리 일대 211만5000㎡ 부지에 산업용지 171만9000㎡, 미니복합타운 39만6000㎡를 조성하는 일반산업단지다. 완주군, 효성, 오에스개발, 동서건설, 신성건설, 한국투자신탁이 3444억 원을 투자해 창의성과 민간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 산업단지를 비롯해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학교시설 등으로 토지이용이 계획돼 있어 기업 130여개, 1만4252명 일자리 창출, 1조원 투자유발, 3조7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완주테크노밸리 제2단계는 오는 2021년 준공될 예정으로 호남고속도로 익산IC, 익산~장수 고속도로, 지방도 799호선 등 광역교통망과 탁월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이어 전주과학연구단지, 완주테크노밸리 제1일반산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인접해 있고 KIST전북분원, 고온플라즈마응용연구센터 등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특히 131만1000㎡규모로 조성된 테크노밸리 1단계가 준공 뒤 1년여 만에 100% 분양에 성공해 제2단계도 기업 유치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그동안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탕으로 예산확보와 행정절차 이행 등에 노력해 많은 이들의 축하 속에 기공식을 갖게 됐다"면서 "복합행정타운, 중소기업 전용 농공단지 조성 등 3대 대형 공약이 이제 본격도에 올랐다. 앞으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삶의 질이 높은 전북경제 1번지 완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10월 전북지역 소비심리지수 111.2p

전국평균보다 2p 높아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전북 6개 시 지역 400가구를 대상으로 소비자 동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월 소비자심리지수가 111.2로 나타났다. 30일 밝혔다. 이는 전국평균(109.2)보다 2포인트 높은 수치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100을 넘으면 소

비자의 심리가 낙관적이라는 것을, 100 이하는 비관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10월 중 전북지역 소비자들의 현재 생활형편 소비자동향지수(CSD)는 96로 전월대비 1포인트 하락한 반면 생활형편전망 CSI는 108로 전월대비 5포인트 상승했다. 현재 경기판단 CSI는 93으로 전월대비 4포인트, 향후 경기 전망 CSI는 102로 전월대비 3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취업기회 전망 CSI는 103로 2포인트 하락했고, 금리 수준 전망 CSI는 120으로 5포인트 올랐다. 전북지역 소비자들의 현재 가계저축 CSI는 98로 전월보다 2포인트 상승했고, 가계저축 전망 CSI도 101로 3포인트 상승했다. 현재 가계부채 CSI는 100, 가계부채 전망 CSI는 96으로 각각 1포인트씩 올랐다. 물가 수준 전망과 임금 수준 전망 CSI는 각각 133과 126으로 전월과 동일했고, 주택 가격 전망 CSI는 111로 7포인트 올랐다. /뉴시스

전주교도소, 2021년 말까지 이전 완료

현 부지 동쪽 뒤편인 평화2동 작지마을 일원에 신축

전주 남부권 발전을 막아온 전주교도소의 이전사업이 추진 15년 만에 본격도에 오르게 됐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영희 전주시의회 의장, 구지서 전주교도소장, 허영 작지마을 주민대표는 3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가 지난 12일 전주교도소 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입안 제안서류를 시에 제출함에 따라 전주교도소 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첫 행정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허영 주민대표를 포함한 이들은 "향후 후 교도소 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마을주민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02년 전주시가 법무부에 교도소 이전을 건의한 것을 시작으로 추진돼온 전주교도소 이전사업이 15년 만에 본격도에 오르게 됐다. 앞서 법무부는 2015년 11월부터 전주교도소 이전사업 기본조사 설계 용역을 추진해왔으며, 최근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주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입안 제안서류를 제출했다. 시는 이를 토대로 올 연말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주민 공람 공고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절차를 거쳐 올 연말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부터 기본설계 용역과 실시설계 등을 거쳐 오는 2019년에 토지보상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늦어도 2020년 초에는 착공해 2021년 말까지 이전사업을 끝낼 방침이다. 전주교도소 이전사업에는 약 1,500억원이 투입되며, 현 교도소 부지 동쪽 뒤편인 평화2동 작지마을 일원에 신축한다. 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내년도 국회 13억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상태다. /김민근 기자

나만아기든 대둔산 케이블카

전주매일신문 창간을 축하합니다

전북 완주군 운주면 대둔산공원길 55 (산북리 산23-30)
☎ 063-263-6621~2